

# 아산뉴스

2005년 7월 25일 (월요일) 제139호

개혁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팔

발행인:아산시청/편집:공보체육과/우편번호:336-701/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전화:(041) 540-2221/팩스:(041) 540-2162/http://www.asan.go.kr

## 아산시,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 『대상』(행정서비스) 수상!

아산시가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5년도 지방자치 10년의 종합평가에서 지역발전과 자치행정혁신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 받아 한국지방자치경영 행정서비스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같은 성과는 아산시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 실천을 시정의 최고 목표로 정하고 실과별로 22개분야의 행정서비스 현장을 기초로 시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경영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우수시책을 9개 부문으로 분류, 정리하여 1차 심사를 무난히 통과 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조사, 인터뷰 심사 등을 통과 하여 서비스행정의 우수성을 인정 받게 됐다.

그동안 시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세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 편의를 위

해 잘못 된 행정서비스에대한 시정 및 보상, 생활민원종합정보화 제작배포,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민원사항 처리과정 및 결과 신속한 안내 등을 들수 있고 ▲노약자와 농민을 위한 봉

사행정의 전개(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설치운영, 농기계대여은행, 의료보장구 대여사업, 무농산 민원현장상담실, 장애인 민원후견인제 등) ▲시정의 시민만족도를 측정(민원, 보건만족도조사, 민원인이 선정한 친절공무원)시정에 환류토록 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개선(민원휴게실에 의료측정기 설치, 인터넷망 개설, 작품전시회, 민원안내센터 운영 등) ▲성대하고 짜임새 있는 축제개최(성웅이순신축제, 외암민속마을 쉼골문화제, 은행나무거리축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움을 인정 받았다.

이와함께 서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금연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활발한 기업활동을 유도 2005년도 1/4분기 대한민국 수출흑자의 48.7%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코엑스 시상식을 마치고 "아산시의 수상영예는 시민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보다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한일 한일이 시민의 열과 정성! 도고온천 주변의 공터에 해바라기가 민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사진 한컷을 부탁한다. <사진제공-충청투데이>

### 아산 만평

정 석원



## 아산시보건소 다양한 건강장비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 전기인마기에 몸을 맡기고 쉬어나 볼까?

아산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장비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만도 12억여원을 들여 송암전기치료기 등 9개 기종의 건강진단 의료장비를 구입,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걸음이 잦은 노인 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30대를 구입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노인종합복지관에 골고루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피로 회복기구에 즐겨 애용되고 있고 두타베드 8대를 구입 보건소와 지소 노인

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경락맞사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간과 거리 문제, 이동의 곤란 등으로 보건소를 찾아오기 어려운 시민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전기치료기를 구입 방문물리치료도 실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아산시보건소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피부에 느껴지는 보건서비스 실천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힘써온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기관으로부터 크고 작은 상을 받아오고 있다.

## 어린이 놀이터 이상무(無), 쾌적한 환경 마음놓고 놀자

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관내 21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이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1986년 이후 만들어진 공원의 시설물들이 낡고 위험성을 띠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현대식으로 바꿔 나가면서 칠재 울타리를 일정한 키의 나무로 대신하는 등 쾌적한 환경도 함께 가꾸어 나가므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놀이터 내의 모래를 바꿔주고 양도 늘려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신나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흙속에 심어져 있는 나무 옮겨심기, 전지·전

정작업등을 통하여 보다 밝고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미 7개소의 어린이 공원의 나무를 옮겨 심었으며 전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조사, 조병을 가리고 있는 조경수전지·전정작업을 마무리 하여 심야 공원이 용역들의 불만을 해소 했다.

아울러 주택시설지구에 위치한 2개소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성 공원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모래를 깔고 2개소에는 경계책을 설치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고 놀



▲ 현대식으로 안전하고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공원

면서 즐거운 재밌거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칼럼

## 갖추어진 도시 아산, 21세기 명당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생활의 터를 정할 때 그 지역의 풍수(風水)부터 살폈다. 즉 말하자면 그 땅이 뿜어내는 기운이 사람의 삶에 적합한지 어떠한지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내려오는 곳이라면 모두 다 명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운양이라는 곳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마을 뒷산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山城)과, 곡교현을 중심으로 수없이 흩어져 있는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지역이라 하겠다. 그 긴 여가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이 터전에서 일구었을 것이며 그들의 회로애락을 이 하늘에 묻었을 것이다. 무엇이든 그들로부터 이 땅에 살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 땅으로 불렀을까?

"편안하고 즐거운 삶."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삶.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역사를 만든 힘인 것이다. 바로 명당이 가지고 있는 기운인 것이다. 그 기운이 아직도 살아 오늘날 운양은

아산시로 거듭났으며 20만 인구시대를 넘어 명실상부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수도 서울로부터 40분 거리에 넓고 약한 푸른 평야를 감싸고 펼쳐진 산들 사이로 아산만의 파도가 눈부신 곳. 바다와 육지가 서로 만나 온갖 풍경을 만들어 내며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이 곳에는 또 세계 3대 유산인 종려 하나기 지리하고 있으며 은공(溫宮)의 유서가 서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부터 이 고장은 온천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그 명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이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오늘날 온천은 그 효능을 심본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무국충절(無國忠節)이 피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 분을 기린 현충사는 오늘날 애국심의 표상으로 우뚝 솟아 있고 그 분이 살던 옛집은 민족의 정서적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불맹사성 고택(古宅) 역시 우리에게 청백리의 교훈을 심어주고 있으며 토정 이지함의 결인청 또한 민족사의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아산은 이러한 자연적, 역사적 자산

(資産) 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외적 교통관계의 중심에 위치한 아산에는 현대나 삼성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위시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군집해 국가 경제력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분기 예외의 수출을 아산이 주도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아산은 산업도시로서도 그 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아산에 새로운 자족(自足)형 신도시가 건설된다. 첨단 연구단지와 대학이 주거단지와 어우러져 녹색의 푸른 환경도시로 건설될 아산 신도시는 그 이름처럼 21세기기를 열어나갈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외국 바이어들이 고속철로 아산으로 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편안한 여가를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국내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이런 국가들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훨씬 저렴하다.

그렇다면 아산은 산업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다. 설화산 기슭에 자리잡은 달림 미술관이나 대동리 호수가에 뽕(蠶)을 얹힌 소월 도예관을 비롯하여 세계의 온갖 꽃을 사시사철 구경하

며 꽃바람을 먹을 수 있는 세계 꽃식물원은 아산이 아니면 경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 속에 나라의 미래를 물려주고 세계를 향해 뻗어 나날 젊은이들의 요람인 대학이 5개나 통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을 담당할 인재들을 배출하는 경찰종합학교가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통팔달도로는 주민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어 아산에서는 전국 어느 지방이던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어느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어디 하나 허물을 끼어 없는 이러한 고장은 그야말로 명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명당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찾는다. 그리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곳, 그 곳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자연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자연을 응답하는 삶. 그래서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 아산과 같은 곳을 우리는 갖추어진 도시, 21세기의 명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5일 광복절 다함께 국기를 세양합시다.

##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됐다.

### ■ 이번 정례회에서는

-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 → "수정가결"
- 아산시 외암민속관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2005년도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용화지구 도시개발 사업현장 및 10여 곳의 각종 현안 사업장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의원들의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으며, 6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시정 질의는 97건의 다량하고 심도 있는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함께 선장주인, 무공수훈자회 회원 50여명의 방청이 있어 하는 의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 현안사업장을 방문 설명을 들어보고



▲ 선장면 무공수훈자회 회원 의회방청

## 작지만 소중한 실천, 지금 바로 시작 합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여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상승은 물가상승, 기업경쟁력 약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전량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립니다.



### 〈TV〉

- 채널을 마구 돌리거나 너무 큰 소리로 틀어놓지 않습니다.
- TV를 켜놓은채 잠드는 습관은 버립니다.



### 〈냉장고〉

-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1인당 40~50l가 적당
- 4인가족일 경우 160~200l가 알맞는 크기
-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물은 한꺼번에 넣고 뺍니다.

- 냉장고내 음식물 용량은 60%정도가 적당
- 음식물을 넣을때에는 반드시 식혀서 넣습니다.
- 냉장고 뒷면은 벽으로부터 10cm 정도 떼어 놓습니다.
- 냉장고내에 음식물 10%가까이 시기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합니다.

### 〈세탁기〉

- 일반세탁물의 세탁시간(탈수시간제외)은 10분 이내가 적당
-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뗍니다.
- 세탁당에 따라 소비되는 전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세탁물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 〈에어컨〉

- 여름철 실내온도는 26~28℃로 유지가 건강 보호
-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보다 시원하며, 전기료도 훨씬 절약됩니다.
- 에어컨 필터는 한달에 1~2회 청소, 정기 청소가 3~5%의 효율개선 효과

### 〈선풍기〉

- 선풍기는 강풍약 조절에 따라 10W 정도의 전력 소모가 적어 납니다.
- 가능하면 약하게 약품을 사용합니다.
-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모터가 과열되고 효과도 떨어지므로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바람의 방향은 사면방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 〈다리미〉

-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 타임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합니다.
- 다리미질은 옷감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합니다.
- 옷감에 따라 적합한 온도를 사용합니다.

### 아산뉴스 무료배부 안내

매월 1번씩 만들어지는 아산뉴스! 시민과 함께 합니다. 구독을 원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무료로 배부 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아산시청 공보체육과 12540~2021



### 아산시 빠른소식 인터넷으로 보세요



아산시 빠른 소식 인터넷방송(AI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생생한 아산의 소식들이 매주1회씩 올라 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 배너에서 아산시인터넷방송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기업 행정서비스 현장

#### 1. 일반(창업)공장 승인 및 변경 등 공장설립 지원

- 미비한 구비서류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으며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2.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월1회 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아산시홈페이지(www.asan.chungnam.kr)를 통해 기업지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상품을

을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지역 기업체 홍보책자를 연1회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우리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와의 연계하여 매년1회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4계절 꽃잔치, 마술의 곡교천

성웅이순신장군 축제와 매를 같이 하여 유채꽃으로 일렁이던 곡교천이 이제는 메밀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

시는 7월 19일부터 3일간 곡교천 둔치 3ha에 메밀을 파종키로 하여 8월 중하순에는 충무교에서부터 현충사 입구까지 만개한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곡교천은 봄에는 유채꽃,

여름엔 메밀꽃, 그리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물드는 거리, 겨울이 되면 흰눈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야산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곡교천은 강태공들의 낚시 드라이브가 찾아들고 꽃구경 물구경에 건강을 다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는 종합 힐터의 역할을 복돋

히 해내브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구경거리, 월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곡교천이 마술을 부려 4계절 관광야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면서 '8월 하순쯤이면 유유히 흐르는 물과 만개한 메밀꽃이 어우러져 또하나의 장관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 사랑의 도시락이 여름을 싱싱 달린다

여름 방학동안 밥퍼주는 사단법인 아산시새마을회



▲ 사랑의 반찬을 골고루 담아 봅니다.

사단법인 아산시새마을회는 시와 함께 여름방학동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을 듬뿍 무친 반찬으로 점심 도시락을 순번제로 준비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매일 신선한 점심을 115명의 학생들 가정으로 나르는 배달천사로 나섰다.

시와 아산시새마을회는 7월22일부터 8월20일까지 26일동안 계속될 이번 사랑의 도시락나눔 운동 전개를 통해 단순히 점심제공이라는 의미 외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으

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기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함께 힘들어지는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방학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동안에도 2차 사랑의 도시락나눔 운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하루 지나 22일 첫날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한 한 부녀회원은 '알차게 두르고 내 가족을 위한 상처를 준비하는 기쁜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었다'면서 '함께 많은 것을 먹어야 할 나이의 학생들이 심심한 거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몸도 마음도 훌륭한 청소년으로 무럭무럭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민원처리, 시민에게 우수한 점수 받아

상반기 민원인 만족도에서 전체만족 88.3, 친절도 92%등으로 나타나

2006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



2005년도 상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시민에게 친절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전년상반기에 비해 3.8% 향상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시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시정을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친절, 공정, 민원처리의 신속·정확성, 환경 및 편의시설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응답자 291명(남138, 여153명)의 내용을 분석, 집계로 얻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전체 만족도에

및 편의시설에도 85.0%의 만족도를 보여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시가 그동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땀흘린 노력의 결실이 표면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 야산시장을 찾은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나타났던 좁은 주차장 문제가 다시한번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차수요의 증가에 예상되면서 주차문제는 주차장 확보와 함께 시가 고쳐나아가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시정으로 느끼는 아산



▲ 영인산 물설매장에서 즐거운 한때



▲ 남산터널 시원하게 시원하던 날

# 세계로 뻗어 가는 아산의 힘!!!

아산시가 미국 하버드대와 미시간주립대에 교육 및 조경 등 교육과 도시계획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 전망이다.

시는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단을 구성, 미국의 미시간주 랜싱시와 메사츄세츠주 보스턴시, 텍사스주 오스틴시 등을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0박 12일간 일정으로 랜싱시 토비베네비네스 시장 및 미시간주립대 마이클 밀러 국제대학 연구소장과 에릭스트라우스 도시계획학과장, 하버드디자인 스쿨 니알키우드(Niall Kirkwood)학과장 등을 방문하여 교육, 도시계획분야 교류 협력을 논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문화 등 스마트도시건설과 아산 신도시건설

등 도시계획과 조경,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가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와 국제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와는 조경설계자료 제공 등 국제협력 협약서 체결을, 텍사스 주립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와는 우호적 교류협력을 약속 받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폈다.

특히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전문인 프로그램 VIPP(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 마이클 밀러소장과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하는 등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현재 미국내 대학에는 초중고생을 연수하는 전문연수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미시간주립대와 상호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현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 텍사스주립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프래드릭 스타이너의 오스틴도시계획 참취



▲ 하버드대학교와 맺은 국제 협력 협약

자녀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가장 큰 걱정은 신뢰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방문단은 이를 위해 미시간주립대 마이클밀러 국제전문인 프로그램소장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MSU(미시간주립대)로 보낼 연수생들의 선발, 기간, 비용, 기타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아울러 미시간주립대 도시계획학과와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관련된 자료제공 및 교수진을 통한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하여 상호간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협약서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와는 도시개발 관련 조경설계 및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지원하겠다는 국제 협력 협약도 체결 했다.

이와함께 랜싱시와는 교육등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타일러시와는 의료, 축제(잠미축제)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산호세시와는 IT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양도시간 상호교류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으로 세계속의 아산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풍덩! 빠져보고 싶게 깨끗해진 강당골

## 시원한 물줄기, 깨끗한 강당골

자연의 숲과 시냇물이 어우러져 시민들로부터 4계절 내내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당골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시민곁에 돌아 왔다.

광덕산 자락에 자리한 강당골은 그동안 더위를 피해 찾아 오는 시민과 관광객, 광덕산 등산객과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등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연계곡 유원지 역할을 해내면서 이용객들도 급증해 시의 이름난 휴식처로 자리잡아 왔다.

시는 강당골 자연발생적 유원지의 보존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 자연정화활동 전개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유지하고 깨끗한 강당골을 만

들기 위해 치량진입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을 순번제로 매일 상주하면서 휴식라도 있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해 나가도록 강당골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 내려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한층 즐겁게 하고 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았다는 시민 김모씨는 '서로서로가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면 자연은 커다란 혜택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 같다. 강당골에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대 이정도면 얼마든지 견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충무공의 충효정신, 아산에서 되살린다

성웅 이순신축제 3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성웅이순신축제가 2006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전국민이 관심과 사랑 속에 성대한 축제로 준비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추진 결과 외래관광객유지와 지역특산물 판매 및 숙박, 음식점 이용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성웅이순신축제를 11개 축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성웅이순신축제는 12월중에 세부등급을 결정 받고 정부의 지원확대 뿐만 아니라 축제 전문가인 자문 및 평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 마케팅등 전격적인 지원 아래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축제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2006년도의 축제를 보다 알차고 독특하게 구성하여 고품격의 축제로 만들고 20만 아산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담

아내면서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가영입과 함께 전담 축제추진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충무공의 충효정신을 선양하고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올해의 성웅이순신축제는 20만 시민의 열정과 환호속에 45만 관광객이 발걸음 대 내성왕을 이루면서 중앙과 지방의 방송, 언론기관들의 관심사로 떠올라 관광아산의 대표적 홍보대사가 되었고 20만 시민을 하나로 묶는 특정한 구심점이 되기도 했었다.

2006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

구분	시·도별	축 제 명	2006년 등급
대표 유망	대구	대구약령시축제	지역육성
	경기	연천전국리구석기축제	유망
	강원	춘천마임축제	우수
	강원	인제빙어축제	유망
	충남	한산모시축제	지역육성
	충남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유망
	전북	남원춘향제	지역육성
	전북	무주반딧불축제	지역육성
	전남	함평나비축제	우수
	경북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지역육성
후보	경남	하동야생치문화축제	지역육성
	전남	보성다향제	유망



## 읍면동 소식

### "제 31회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를 다녀와서



7월 7일 금산군 다락원 (생명의 집)에서 열린 합창대회를 다녀왔다.

운양문화여성합창단(운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한 단원으로 아산시를 대표하는 대회에 나간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느라 시간들을 머리에 때워지면서 시에서 제공해준 아주 근사한 버스에 올랐다.

안에는 이미 여러 단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미진한 부분을 연습하기도 하고 지난해 대회를 상기하며 마음을 가짐을 다시한번 다짐아 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따라서 연습하며 긴장을 풀었다.

우리팀을 포함해서 총 13팀이 각 시·군을 대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이 역력했다.

리하설 시간에 맞추어 준비해간 3곡의 노래를 연습해 보고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대회장에 들어서니, 잘 해야 할텐데 하는 조바심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나의 마음을 잡았다.

우리 순서는 3번째, 서산시 다음이다. 무대 위에서 기다리면서 단원들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로에게 무언으로 전하면서 조금씩 남아 있던 긴장감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음을 이상정신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정확한 실력을 가늠 할 수 있게 마이크로 없는 무대에 올라가서 3곡을 약보도 없이 지휘자선생님의 손동작과 사인, 그리고 피아노 반주만으로 누구하나 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창을 하고 내려 올 때는 해냈다는 기쁨과 환희가 물려왔다.

단원들이 내려올 때 잡혔던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지휘자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모두 기쁨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올동을 가마한뎌, 민요곡을 부르는뎌, 우리처럼 순수한 주부만으로 구성된 팀, 장구를 가지고 나온뎌, 저마다 특색있게 노래를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모든 팀들의 합창이 끝나고 찬양 찬나 국악 관현악단의 초청 연주회를 들으며 마음 속으로 미리 짐작이 둔 대상 금상 팀들을 헤아려 보며 이번에는 연습도 많이 했고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 같아 그동안 장려상만 받았는데 좀더 큰상 받기를 유급히 기대했다.

드디어 시상식!

상대상 7팀이 가려지면서 우리팀을 시나고 다른 팀이 불러지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단원들 사이에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상이 아니라 은상만 타자'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동상 은상은 한여상합창단'하고 카이로 멘트가 흘렀다. 아쉬웠다.

대상-논산, 금상-예산, 은상-금산, 보령, 동상에는 우리시와 흥성이 차지했다.

13개 참가 팀중에 우리시와 계룡시를 빼고는 남성 여성 혼성 합창단이었으며 프로수준의 단원들로 구성된 시·군립 합창단임을 감안할 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저녁시간을 조개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하며 연습한 결과로 얻은 동상은 누구에게 보다는 귀한 성과라 여겨졌다.

아니 대상이상의 감회가 단원들 마음속에 자리잡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순수 아마추어로 열세를 이기고 동상에 오른것은 행운도 아니요, 다른 팀이 실수해서도 아니요, 모두가 잘했었다는 의지와 하나된 마음과 소리였다.

우리 아산시도 마음대로 연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는 번듯한 문화회관이 하나쯤 있어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회를 문화 활동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힘든줄도 모르고 가을에 예정인 단풍음악제에 좀더 나은 곡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과 다음 대회에는 단단한 헌상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해 왔다.

언제나 열심인 서원순 지휘자 선생님과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짜증없이 인내 우현진 피아노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많이 대회에 참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신 운양2동사무소와 아산시 관계자 분께도 많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운양문화 여성 합창단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더 나은 합창단을 위해서 아자아자 파이팅!

(운양2동 / 주부명예기자 이혜심)

### 송악에서 맥을 잇는 두레 논매기

지난 16일 송악문화두레논매기보존회는 송악면 서남대 하교 앞 논에서 신나는 풍물소리와 함께 두레논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악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각 기관 단체와 사회·봉사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을 기취 나뉘고 풍속에 우리 민속 고유의 농경문화와 발흥 및 재현을 통한 우리문화를 배우고 알리기에도 크게 기여했다.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흰 옷차림에 지난 해와 달리 짙은 옅은 도롱이를 입고 친환경 정제 논지역의 김매기로 두레농경문화유를 재현해 보여주며 참가자들도 직접 논매기를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풍물판과 공연, 국악인 초청 공연을 통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으며 참가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마당을 전개하여 행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하게 했다.

이와함께 농부들이 모내기를 한후 마지막 만들논매기



▲ 덩디! 허리 한번 피고, 쿵! 김 매고

를 할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풍물패와 함께 흥겹게 춤을 추어 농사짓는 동안의 수고로움을 풀기 위한 농부들의 유일한 화합 어울림마당이라는 두레논매기의 미풍양속을 배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송악 / 주부명예기자 이상숙)

### 돈포, 꽃동산, 꽃거리 경구오세요 지난 4월부터 꽃심기, 코리우스 활짝!

돈포면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민, 직원들은 돈포면이 유난히 국도의 통과구간이 많고 특히 타도(경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마다 가로화단을 만들고 꽃길 가꾸는 등 환경 정비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주민들과 함께 4월부터 서둘러 꽃심기를 시작. 물주기, 풀뽑기 등의 정성을 쏟았고 코리우스, 코스모스, 메리골드, 철쭉, 칸나 등 다양한 꽃들이 만개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름답게 조성된 돈포 꽃길

특히 운용리리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 길과 공터에 무궁화, 매리골드 등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꽃동네를 만들었다.

매년 꽃거리를 만들고 가꾸어 오는데 힘을 쏟아온 운용리 방촌동새마을 지도자는 '꽃길을 가꾸는 것은 내마음을 아름답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유를 갖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지는 일이라고' 말하며 주민들 모두 가까이 꽃심기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돈포 / 주부명예기자 서정애)



## 유관기관 소식

###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신청안내



관설 등 LP가스시설 무료 개선 신청 접수 중

□ 신청기간: 2005년 9월 30일까지(사업일 확보시 전수마련)

□ 신청장소: 주거지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지역 지역계좌(전화 540-2350)

□ 대상자: 경로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저소득·부자거점, 저소득경로연수급자, 보육료감면대상자 등 명세가구

□ 사업내용: 용기보관설, 금속배관, 퓨즈폭등 안전기기 무료설치



▲ 순저서로 이구에서 조차된 작업시 주시 두 주시 (사전연락: 한전아산전력소 041-539-3358)

### 전기요금 인터넷납부 서비스 전면확대 시행

한국전력은 고객들의 전기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금강열제현과 국내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

□ 납부방법: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조회하고 납부

□ 납부 가능한 은행은 국내 19개 전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23개 금융기관

□ 문의전화: 한전아산지역 요금과 041-539-3241